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광주·전남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안지켜”

총 구매액 1% 이상 구매 의무...광주 0.57% · 전남 0.56%

박찬대 “장애인 재활·자립 제도,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광주와 전남지역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던 교육청이 전국 17개 중 절반도 미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광주 경우 구매 비율이 2014년 0.23%, 2015년 0.37%, 2016년 0.63%, 2017년 0.46%, 2018년 0.57%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구매비율이 2014년 0.42%, 2015년 0.46%, 2016년 0.44%, 2017년 0.34%, 2018년 0.56%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수치가 합산된 것이고 2017년과 2018년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수치를 분리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

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며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1

## 광주 학생들,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두각’

세광학교 임보석, 시각장애 극복 ‘엑셀’ 부문 우승 ‘교육부장관상’

e스포츠에선 ‘Switch lanes’ 우승 ‘모두의 마블’ 준우승 등 활약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선에 출전한 광주 학생들이 ‘엑셀, 인터넷검색’ 부문과 ‘모두의 마블, 스위치볼링, 마구마구,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국립특수교육원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대회 엑셀 부문에 도전한 광주세광학교 임보석 학생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우승(최우수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을 차지했으며 은혜학교 신정민 학생도 스위치볼링(Switch lanes)에서 우승(최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거머쥐었다.

선장초등학교 곽태훈 학생은 시선이 집중됐던 초등 ‘모두의 마블’ 종목에서 준우승(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기록했으며 은혜학교 학생도 인터넷검색 부문에서 장려상(국립특수교육원장상)을 차지했다.

광주자연과학고 학생 2명과 은혜학교 학생 2명은 ‘스타크래프트’와 ‘마구마구’ 종목에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애학생 미래정보역량과 SW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학생 약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예선을 진행했다. 본선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으며 시·도 대표선수 959명이 참가했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본선은 대회장을 찾은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학부모·지도교사 등 1500여 명의 활약과 응원으로 열기를 뽐냈다.

광주 교사·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힘들게 딴 메달이지만 기록보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찾았다’는 면에서 기뻐하고 있다.

스위치볼링(개인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은혜학교 신정민 학생 어머니는 “(이번 전국대회 우승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다. 지금처럼 밝고 많이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향후) 사회생활에서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선장초 곽태훈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한 ‘모두의 마블’ 종목은 장애·비장애 학생 각 1명 또는 장애 학생 1명과 부모 1명이 팀이 되는 2인 1팀 방식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선장초 최주희 담당 교사는 “(학생이)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연습했다. 올해 5월부터 대회를 준비했다.”며 “대회 끝나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지금 완전 신나 있다. 형을 포함해 주위에도 자랑을 많이 한다.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엑셀’ 부문에서 우승한 세광학교 임보석 학생은 2019년 5월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원반, 투포환 종목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담당 이상철 장학사는 “대회에 참여하여 경기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아래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경쟁과 비경쟁, 중도·중복장애 번외 종목대회, 로봇축구·드론조정 등 IT체험으로 각각 진행됐다. 최종 대회 결과는 9월 19일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한 공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상장과 부상은 10월 17일 이후 소속 학교로 송부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예수병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5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 예수병원, 장애인

### 일자리 창출 적극 앞장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수병원은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하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예수병원은 오는 11월 중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 10여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장애인 고용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온 예수병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